

# 복합 문화상품으로 개발되는 판타지 소설들

문화산업시대에 책의 가능성 보여줘

표정훈 | 출판칼럼니스트

최근 들어 책이 복합 문화 상품군의 하나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영화, 책,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이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역시 마찬가지며, 얼마 전 국내에 개봉된 영화 <반지의 제왕>도 빼놓을 수 없다. 판타지 장르와 게임 산업의 연계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를 두고 책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언저리에서 결별이나 쪼는 신세가 돼버렸다는 엄숙주의적 색채의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이른바 문화 산업 시대에 출판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콘텐츠, 영화, 캐릭터 팬시 등 패키지 상품군 구성해**  
출판의 엔터테인먼트화에 대한 비판론과 긍정론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관련 업계의 움직임은 발 빠르기만 하다. 특히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과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주목을 끈다. 원작 도서 콘텐츠, 영화, 캐릭터 팬시 상품,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관련 서비스 등으로 일종의 패키지 상품군을 구성함으로써,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꾀하는 문화 산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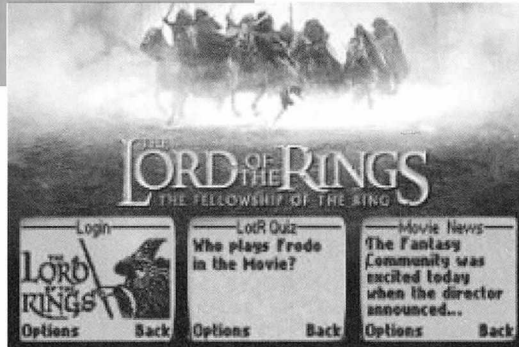
예를 들어 J. R. R. 톨킨 원작의 소설을 영화화한 <반지의 제왕>은 무선 인터넷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영화 배급사인 뉴라인 시네마(New Line Cinema)는 핀란드의 무선 콘텐츠 제공 업체 라이엇 엔터테인먼트(Riot Entertainment)와 협력해, <반지의

제왕>을 주제로 한 무선 게임을 제작 중이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3G 멀티 플레이어 게임이나 SM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반지의 제왕' 무선 광고도 내보낼 예정이다.

라이엇 엔터테인먼트측은 역시 영화로 개봉된 <브리짓 존스의 일기>와 관련된 무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작가 헬렌 필딩(Helen Fielding)의 인기 소설이기도 한 이 작품의 주인공을 캐릭터화한 서비스로, 20~30대 여성을 주 이용자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PDA나 휴대 전화에서 주인공처럼 일기를 적을 수도 있고, 남자, 섹스, 다이어트, 쇼핑 등을 주제로 한 '브리짓에게 물어봅시다'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성격 테스트도 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원작자 헬렌 필딩이 영화 제작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작품 주인공을 캐릭터 상품화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작가, 문화 상품 기획자로서의 작가로 작가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는 추세마저 읽을 수 있다.

### 추수와 도피 사이에서 중용 모색해야

한편 2000년 5월에 다국적 미디어 기업 피어



영화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출판이 결합하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넣고 있다. 라이엇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중인 '반지의 제왕' 무선 어플리케이션 보기 화면.

슨 계열사인 펙킨 그룹에 인수 합병된 더링킨더슬리(Dorling Kindersley Publishing)의 향후 사업 방향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 회사는 오프라인 도서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오프라인 도서와 온라인 매체 상품 양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더링킨더슬리가 진작부터 강점을 보여 온 여행, 건강, 원예 등의 실용 도서 콘텐츠를 디지털 매체에 담아 패키지 상품으로 제작·출시하고, 피어슨의 방송 및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라인 및 디지털 학습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피어슨은 이미 전자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 콘텐츠 온라인화를 통해 2000년에 6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비판론과 긍정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긍정론이 극단화되면 세계 동시 개봉 예정 혹은 제작 단계의 블록버스터 영화나 공연물의 원작 출간에 사활을 거는 현실 추수주의로 흐를 것이다. 비판론이 극단화되면 다매체 사회에 전통적인 출판 활동이 적응할 수 있는 유력한 길 하나를 애써 무시하는 현실 도피주의로 흐를 것이다. 추수주의의 끝은 책이라는 매체 혹은 출판 활동의 독자성과 고유성의 상실이며, 도피주의의 끝은 시대의 흐름과 소통하는 능력의 상실이다. 다양한 매체들이 책을 뛰어넘는 접근 및 활용의 효율성을 무기로 책의 자리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추수와 도피라는 양극단 사이의 중용을 모색하는 일, 올해 우리 출판계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다. ■